

보도시점 2024. 12. 22.(일) 11:00
< 12.23.(월) 조간 >

배포 2024. 12. 20.(금)

호주와 에너지 공급망 협력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분야 무역·투자 확대키로

- 한-호 녹색경제동반자협약(Green EPA) 체결
- 수소,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분야 실질 협력 확대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청정경제 분야 무역·투자 확대와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호주 녹색경제동반자협약(Green EPA*)’을 12월 20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호주의 산업, 통상, 에너지, 광물, 기후변화 등을 총괄하는 3개 부처(①기후에너지환경수자원부, ②외교통상부, ③산업과학자원부)와 체결한 포괄적 협력 플랫폼으로 해당 분야 양국 간 협력을 격상시킨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기반으로 양국 기업 간 실질 비즈니스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Green Economy Partnership Arrangement: 기후·에너지 분야 전반 협력 협약으로, 공급망 다각화, 무역·투자 협력 강화, 무역장벽 완화, 표준·인증 협력, 탄소시장 협력 등 포괄

호주는 아태지역 청정수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은 안정적인 수소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호주는 최근 이산화탄소 국경 이동에 필요한 국제협약 상 절차를 완료*하고 자국내 폐가스전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저장에 적극 나서고 있어, 금번 협약으로 양국 간 이산화탄소 이동·저장에 대한 협력체계가 마련되어 양국 간 CCUS 분야 실질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양국간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며, 청정에너지와 저탄소 기술 개발 협력을 확대해 무역 및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 양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협약상 이산화탄소의 국경이동을 위해서는 「런던의정서 2009 개정안」에 대한 수락 및 잠정적용 선언이 필요하며, 절차 완료국(9개국)중 아태지역은 한국, 호주 2개국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호주와의 이번 협약은 기존의 협력 수준을 넘어선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체계”라고 평가하며, 특히 “호주 3개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청정에너지 산업과 공급망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기술 확보와 해외 진출에 새로운 기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크리스 보웬 호주 기후에너지

환경수자원부 장관은 “양국이 2050 넷제로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수소, 청정광물 등 분야에서 양자 협력이 심화·확대될 것”이며, “이러한 강화된 협력이 역내 새로운 고용과 수출 기회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번 한-호 Green EPA는 한국이 체결한 최초의 기후·에너지·공급망 분야 포괄적 협력 협약으로 우리나라가 청정에너지 기술 선도국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청정경제 시대를 선도하고 우리기업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타국과의 Green EPA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신통상전략지원관 기후에너지통상과	책임자	과 장	윤진영 (044-203-4890)
		담당자	서기관	박근형 (044-203-4895)
			사무관	성하진 (044-203-4892)

